

상록탑

# 정의가 숨쉬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학보사 마감을 하느라 새벽 여섯 시에 잠들었다. 퇴임을 앞둔 마지막 신문 인만큼 이틀동안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2년 6개월 동안 학보사 활동을 끈기 있게 해온 이유는 언론인이 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꾸준히 신문을 만들었던 내 노력이 미래에 큰 재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남미래  
편집국장

“

### 현 시대 관련자

### 일벌백계해 정의를

### 바로잡아야

그러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것부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 특혜, 대기업에 출연금 압박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지난 2년 6개월간 학보활동이, 아니 지난 23년의 세월이 허망해진 기분이었다. 물론, 흡수제, 금수저 계급론이 등장하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옛말이라고 했지만 정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권이 개입하면서 이익을 챙겼거나 권력을 사유화해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작금의 상황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순수했던 나의 믿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정유라를 위한 입학 특혜나 학사 특혜는 전혀 없었다던 학교의 해명. 그러나 그 앞에 정유라를 뽑기 위해 2명을 떨어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심지어 응시도 안한 시험에서 정유라의 답안지가 제출됐거

더 나은 삶, 부자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끼리 먹고 살아 부족하지 않은 딱, 그 정도의 삶을 갈망했다. 그런데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도 아닌 일반인인 최순실 측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유로 사회 곳곳 권력을 행사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정의가 철저히 무너졌다. 평소엔 인지할 순 없지만 사회 정의란 매우 중요한 가치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노오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모순적이지만 최순실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든다. 그가 국정을 농단한 여러 행태가 정유라 특혜는 물론 대기업의 출연금 로비 등 '박근혜 게이트'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회 정의의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를 모두 일벌백계하고 비리자의 죄후를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

나 교수가 대신 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감정일 것이다. 선의로 한 일이라는 믿지 못할 대통령의 변명부터 돈 없는 너희 부모를 탓하던 정유라, 검찰수사를 받은 우 전 민정수석의 팔짱 낀 모습까지. 자괴감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의욕을 상실했다. 우리 역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하지도 않았다. 지금보다 조금

학생 칼럼

# 잃어버린 우리 사회 속 공감을 찾아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공감의 부족이 타인에 대한 크고 작은 정신적, 육체적 폭력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소유 지향의 현대 사회에서 공감은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이며,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 빈부 격차, 강력범죄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로 점철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의 범법행위 역시, 그 시작점은 공감의 부재이다.



양혜주  
특교15

“

### 사회 문제 해결 위한

### 지도층의 공감과 소통 필요해

한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적정 수준의 자기애와 관련이 있다.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은 자기애적인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타인에 공감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쉽게 압도되어 공감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지도층의 갑질과 부정부패는 근본적으로 자만심과 우월감 등의 과도한 자기애와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겸손하지 못한 지도자는 스스로가 국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순위로 두며, 국민의 요구와 뜻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월하여 상대방의 영역에 접근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때 서로가 약점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쉽게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에는 직접적인 대화, 통신수단, 오감과 눈치 등을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소통이 선행되어야만 상대방의 처지인 자신을 쉽게 상상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반성, 자기성찰, 직관을 경험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통의 부재는 곧 공감의 부재와 직결된다. 두 번의 사과, 비서진과 내각의 교체에도 국민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불통이 강하게 체감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정치인에게는 나름의 정치적 신념이 존재하고, 이 신념은 그와 대립하는 신념과 끊임없이 충돌한다. 다만 자신의 신념이 가진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불통이다. 소통과 공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지금, 부디 이 사회의 지도층이 본인의 고집보다는 국민과의 공감, 사회와의 공감, 국익과의 공감을 우선시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

비선 실세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끝없이 쏟아지는 요즘,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게는 공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공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감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한 조건을 그들 스스로 고찰해봐야 한다. 공감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상대방과의 자유롭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한, 공감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역을 초

여론광장

# 공강 시간으로 공감하는 법

십시일반(十匙一飯)  
[명사] 밥 열 숟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  
한 학생이 종종걸음으로 학생 식당으로 들어간다. 학생은 배식 줄에서는 대신 조리실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닦기 시작한다. “나의 공강 한 시간이 내 친구의 밥 한 끼로.” ‘십시일반’은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의 공강 시간을 이용해 교내 학생 식당에서 일한 임금으로 식당의 식권을 구매해 교내에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전달한다.

함한 전국 27개 대학교와 함께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성장했다. 하루 중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 추가 인력이 필요했던 학생식당과 공강 시간을 유용하게 쓰고 싶었던 학생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 밥 한 끼조차 먹기 어려웠던 학생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눔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실제로 직접 십시일반에 참여했던 본교 학생은 “원래 공강 시간은 카페나 열람실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좀더 보람차게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십시일반 활동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한 시간 동안 땀 흘리며 바쁘게 식당 일을 하다 보니 학생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 학교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십시일반 덕분에 밥을 챙겨먹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올린 글을 보았을 때 뿌듯했어요.”라고 밝히며 십시일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또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2.6%가 ‘식권으로 아낀 돈으로 자기 계발에 투자했다’라고 응답했고, 96%가 ‘나중에 도움받은 만큼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친구에게 한 끼를 대접하는 작은 나눔이지만, 이 한 끼가 모여 친구의 걱정을 덜고 자기 계발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도움을 받은 친구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나비 효과가 되는 것이다.

비록 공강 한 시간이지만, 모두에게 작은 보람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십시일반’, 힘든 일이 많았던 올해, 이번 겨울에는 친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줄 수 있는 나의 공강 한 시간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김선우(커미15)**

사설

# 총학, 학내 사안 공약 이행에 힘쓰길

제49대 총학생회(총학) ‘스타팅이화’의 당선과 함께 제48대 총학 ‘샤우팅이화’의 임기가 마무리되었다. 샤우팅이화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본지는 2016년 한 해 동안 샤우팅이화가 당선 당시 제시한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본교생 309명을 대상으로 총학 결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화인이 생각하는 샤우팅이화가 가장 잘 이행한 공약은 위안부 집회, 시국선언 등 사회연대(약 66%) 분야였다. 반면, 가장 잘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학내 사안과 관련된 등록금 인하(약 46%)였다.

와의 인터뷰에서 본관점거 농성으로 학내 사안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아쉬워했다.

사회연대 공약에 비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인하 공약의 이행이 미미한 것은 이번 총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샤우팅이화 이전 제47대 총학 ‘이화답게’도 학생들이 가장 잘 이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공약은 등록금 인하였다. 이화답게는 교양시험기간 폐지 등 본교의 일반적인 통보에 대해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생활복지 외 공약 이행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학기 본지에서 시행한 샤우팅이화 중간 결산에서 9개 공약 중 이행한 공약은 이화인 교복 공구, 사회연대, 등록금 인하였다. 샤우팅이화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피켓팅 및 불참 등으로 등록금 인하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당시 샤우팅이화는 이행하지 못한 공약을 위해 1학기 종강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2학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학 스타팅이화에 본교생들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활동 역시 등록금 인하(약 39.3%)다. 또한, 본교생들은 지난 본교의 졸속 행정과 사업 추진 여파로 학교 행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약 24%)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요구로 봤을 때, 결국 학생들이 총학에게 가장 바라는 부분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학내 사안 내용의 공약 이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7월28일부터 시작된 미래라이프대 반대 농성으로 샤우팅이화는 나머지 공약 이행에 충실하기 어려웠다. 학내에서 일어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바빴기 때문이다. 이어 밝혀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총학은 2학기에도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 등 사회연대 활동을 주로 이어나갔다. 사회연대 활동은 이화인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며 샤우팅이화는 성실히 참여했다. 하지만 다른 학내 사안 관련 공약의 이행이 미흡했던 것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샤우팅이화 역시 본지

사회활동에 힘쓰는 것 역시 필요하고, 이 역시 총학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스타팅이화는 ‘이화의 총학’이란만큼 이화인의 목소리를 대표해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학생들이 그들을 선출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 인하, 학교와 학내 구성원 간 소통 등 총학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화를 이끌어 나갈 스타팅이화는 사회연대 활동과 더불어 실질적인 공약 이행을 노력해 본교생이 바라는 이화를 시작하길 바란다.



금주의 책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 에치오 만치니 지음, 파주: 안그래픽스, 2016. 이 책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순수 혹은 상업 예술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닌 빈곤·부정부패·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혁신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공동체 지원 농업, 캐나다 의료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등 전 세계에서 소박하게 펼쳐지고 있는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혹은 디자인을 통한 사회혁신 운동의 다양한 실천의 예를 소개합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 틀 속의 제도과 법규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진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려는 보통 사람들과 전문적인 기술로서의 디자인 능력을 갖춘 이들의 협업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디자인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회 변화는 육성되고 촉진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의 사람들과 전문가로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밝은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이화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여러 분께 추천합니다.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금주의 책'은 "도서관 BEST 대출도서"에서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입기도서 / 3층 일반자료실 745.2 M319c한]**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Rowling, J. K.	문학수첩	2007
2	구르미 그린 달빛: 윤이수 장편소설	윤이수	열림원	2015
3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택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4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Rowling, J. K.	문학수첩	2003
5	아도니스: 남해인 장편소설	남해인	동아	2015
6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Rowling, J. K.	문학수첩	2005
7	신과 함께: 저승편	주호민	애니북스	2011

1026-1124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